

동대문교회 존치 및 민족여명의 동산건립을 위한

# 역사자료



여명의 종



보구녀관



1892년 건축보존 예배당





## 동대문교회는 民族黎明 (민족여명)의 터" 민족을 깨운 터"로서 살아있는 국민교육장이 되어야한다.

기독교가 이땅에 들어온 후 조선의 말기와 일제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오늘날 까지 127년 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학교, 병원, 교회를 통하여 서양문물의 전수와 문맹퇴치, 민족계몽운동, 삼일운동 항일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데에 중심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문화가 모두 집약되어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기독교를 접어두고 근 현대사를 논할 수 없으며, 동대문교회를 덮어두고 기독교 역사문화의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에서는 ‘동대문 성곽공원개발’ 이라는 미명 하에 교회를 내 보내고 민동공원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교회가 역사의 현장을 떠나는 순간 한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는 소멸됩니다.

본 기독교역사문화보존운동본부에서는 동대문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문화를 테마별로 복원개발하여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역사속으로 묻혀질 위기에 처한 동대문교회의 역사문화를 발굴, 복원하고, 기독교 역사문화공원으로 개발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기에 미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순교로 이룩해 놓은 聖地를 보존하고 복원개발하여 民族黎明의 東山 (公園)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유 래

民族黎明(민족을깨운)의 터 동대문교회는 조선선교를 위하여 미국감리교선교사 아펜젤러목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땅에 들어온 후 미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대부인, 스크랜턴 의사(목사) 부부, H.B.헬버트, D.A.벙커목사, 여의사 하워드(Miss Meta Howard), 로제타 홀 등의 선교사들이 이화학당, 배재학당, 정동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를 세워 초기 조선선교를 시작하였다. 선교초기에는 이화학당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배재학당에서는 예배와 출판사를 경영하였고, 정동교회, 상동교회에도 병원을 세워 의료선교를 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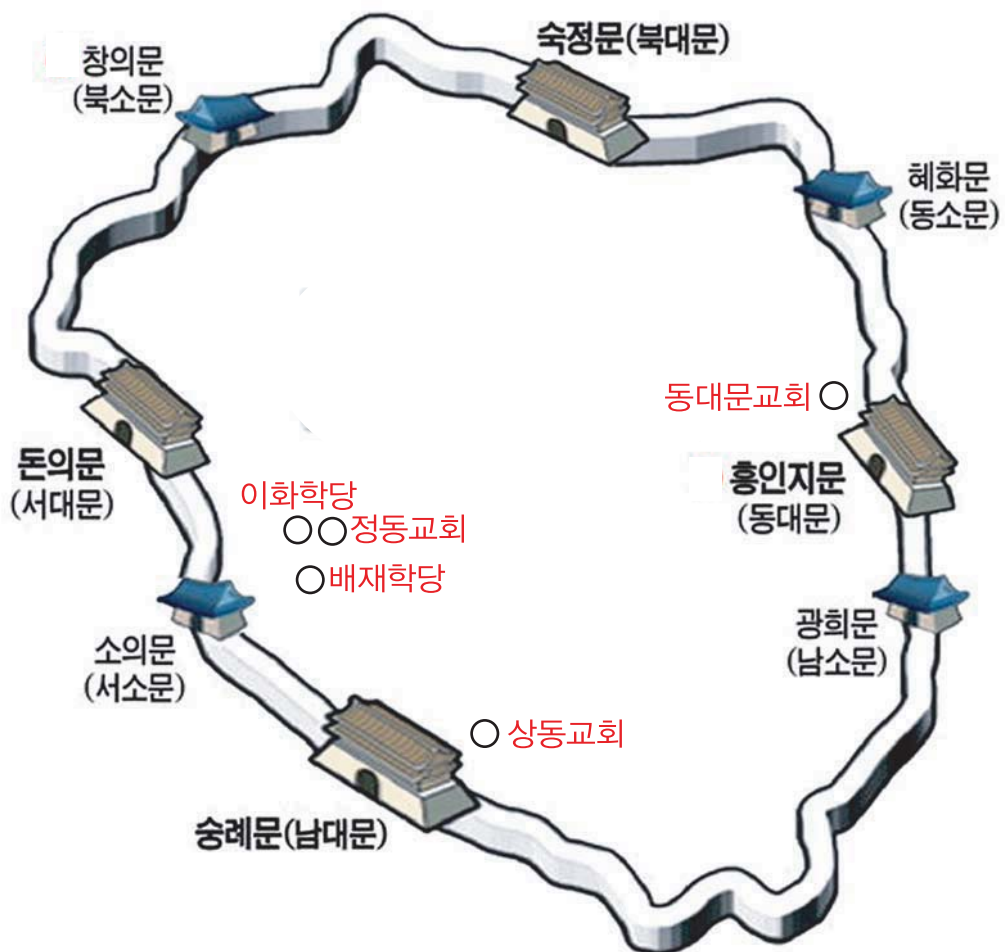
당시 동대문교회는 시약소(동대문여자진료소)를 먼저 세워 의료선교로 시작하여 “보구여관”에서 동대문교회가 1889년도에 탄생하게 된다. 빠른속도로 이화학당, 배재학당, 정동교회, 상동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며 부흥이 되어감에따라 각각 학교와 교회는 교육과 교회의 목적에 치중하게 되었고 동대문 교회만은 병원, 학교를 통한 선교를 계속 하게 된다.

의료선교는 정동교회 보구여관이 1889년 동대문진료소로 옮겨지면서 동대문교회에서 전담하게 된다. 당시 빈민과 민중선교를 위하여 한양의 동편 흥인문 언덕에 세워진 동대문교회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를 담당하는 교회로서, 동대문교회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60여년간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며 민족을 일깨우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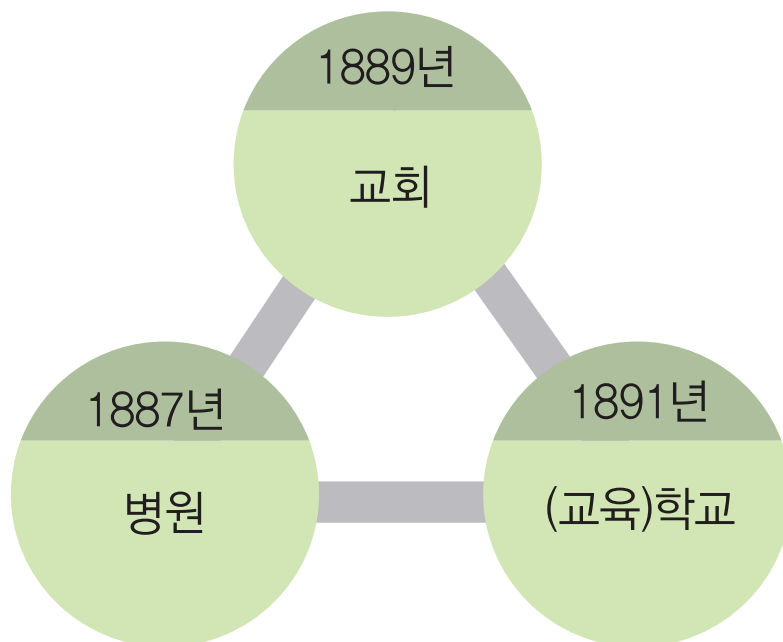
- 조선선교초기 선교사들은 1887년 당시 현재의 종로구 종로 6가 65-6번지 외 16 필지를 포함 (14,742 m<sup>2</sup>)의 동산을 재단법인 조선 기독교 미감리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확보하여 이곳에 동대문교회와 보구여관, 각종학교를 세웠고 점차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발전되고 부흥됨에 따라 의료선교와 교육선교(학교)가 확장되고, 보구여관은 이대부속병원의 전신이 된다.
- 동대문교회는 교회, 병원, 학교 이 세종류의 선교활동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장기간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역사의 현장 이다. 동대문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모여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쳤던 장소로서 이민족을 깨우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서구문물을 전하는 역사와 문화의 터전이 된 것이다. 이따로 동대문교회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12종류의 역사, 문화를 한 장소에 보유하게 된 것이다.



## 한양 옛 성곽과 교회 위치도



## 민족여명(民族黎明)과 동대문교회의 역할



교회는 병원과 학교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암울했던 시기에 민족의식을 깨웠다.

1889년부터 동대문교회는 구역내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60여 년간 운영해 오다 해방(1945.8.15)을 전후하여 병원과 학교는 분리, 독립을 하게된다.

## 민족을 깨운 동대문교회의 역할



1885년 전파된 기독교는 암울했던 시대를 깨우고 서양문물과 기독교문화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깨우고,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으로부터 조국근대화, 민주화를 이루는 전 과정에 기독교의 역할이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역사문화가 한국교회 중 유일하게 집약되어 있는 교회가 “동대문감리교회”이다.

## 동대문교회 관련 선교사



스크랜튼대부인



아펜젤러



스크랜튼선교사  
1대 담임



허버트 선교사  
2대 담임



병커선교사  
3대 담임



케블선교사  
5대 담임



스웨어러선교사  
7대 담임



여의사 하워드



의사 로제타홀



의사 해리스  
(여성선교사)



의사 커틀러  
(여성선교사)



Mrs. Adab Hall  
(동대문여자보통학교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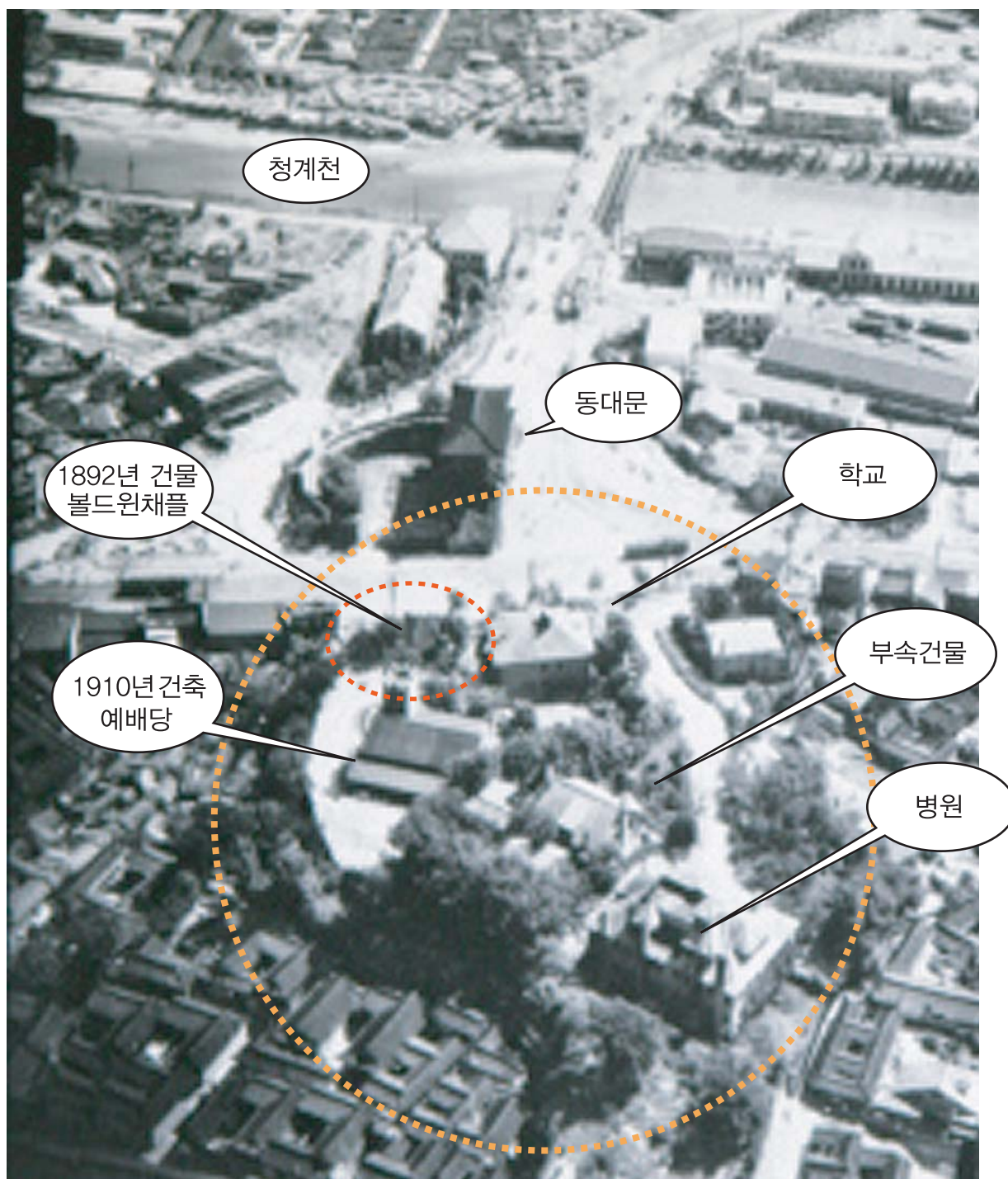


선교사 묘역사진 (양화진)



의료선교, 교육선교, 민족독립의 요람인 동대문교회는  
민족을 깨운 조선 최대의 선교타운이었다.

(1945년 9월8일 항공 사진)



## 1. 1892년 건축된 한국 最古의 예배당

동대문 감리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1892년 12월 25일에 입당예배를 드렸으며 그 건물이 현재 까지 보존되고 있다.



### “ㄱ” 자형 예배당

(유래)

1885년 아펜젤러선교사는 감리교를 설립하고 1887년 3월17일 종로6가 65번지 일대를 취득하여 서민선교를 위하여 병원,교회,학교를 설립하였다.

동대문부인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기도처를 세워 예배를 드리면서 여의사 하워드양이 파견되고 여자성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교인이 늘면서 스크랜톤부인이 이화학당에서 시작한 정동부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동대문교회 설립의 기초를 닦아왔다.

1889년 부인진료소에서 처음 예배드릴 당시에는 여성들만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 등 남성들에게 전도를 시작하여 드디어 1892년에 남녀가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건축한것이 “ㄱ자형예배당”이다. 그 당시 이화학당 예배실에서는 강단에 포장을 치고 포장뒤에서 남자 선교사가 설교를 하였다.

당시 봉건사회에서 유교적사고의 생활문화로 이어진 시대의 상황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 철저하였던 시기여서 서양문물을 따르기는 어려운 시대이었기에 남녀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한국전통가옥인 “ㄱ자형, ㄴ자형”의 와가(瓦家)건물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1892년 미국 여선교회 본부 총무인 볼드윈부인이 동대문 여성사업을 위하여 많은 기부금을 보내주어 남녀가 한 장소에 예배 드리는 국내 최초의 예배당을 새로 짓고, 여학생 교실과 진료소 건물도 확장하였다. 이때 지은 예배당이 1892년도에 지은 동대문교회건물로서 와가(瓦家)의 “ㄱ자형”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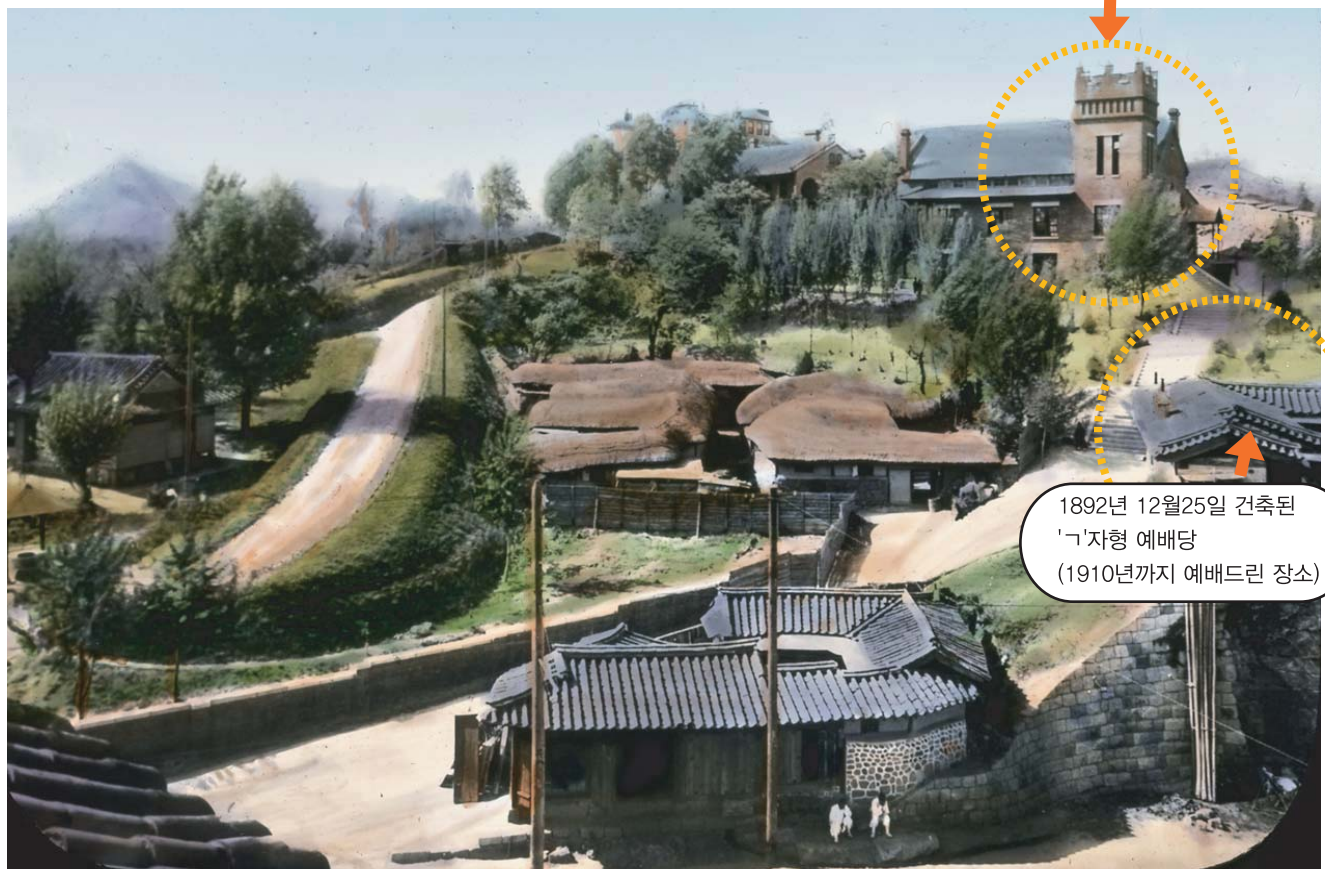
동대문 교회 여성병원에서 여성들만이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들과 남성들이 전도되자 공동으로 드리는 넓은 예배장소가 요구되었기에 한국 최초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건물을 지었다. 이는 남녀가 한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로는 한국 최초로서 소래교회가 1895년 이며, 정동교회는 1897년이다. 정동교회는 동대문 교회보다 3년이나 빠르게 개척되었으나 1897년 신식 양옥건물을 건축하여, 창립 후 11년이 지나서야 남녀가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동대문 교회는 1892년 남녀공용 전문예배실 즉 볼드윈채플 예배당을 지을 당시 한국건축양식인 “ㄱ자형” 와가건물의 특성을 잘 살려 설계가 되었기에 당시의 봉건사회에서 불가능했던 양성평등을 처음으로 구현한 교회가 되었다.



1892년 미국 여선교회 본부 총무인 볼드윈부인이 동대문 여성사업을 위하여 많은 기부금을 보내주어 남녀가 한 장소에 예배 드리는 국내 최초의 예배당을 새로 짓고, 여학생 교실과 진료소 건물도 확장하였다. 이때 지은 예배당이 1892년도에 지은 동대문교회건물로서 와가(瓦家)의 "ㄱ자형"건물이다.

동대문 교회 여성병원에서 여성들만이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들과 남성들이 전도되자 공동으로 드리는 넓은 예배장소가 요구되었기에 한국 최초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건물을 지었다. 이는 남녀가 한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로는 한국 최초로서 소래교회가 1895년 이며, 정동교회는 1897년이다. 정동교회는 동대문 교회보다 3년이나 빠르게 개척되었으나 1897년 신식 양옥건물을 건축하여, 창립 후 11년이 지나서야 남녀가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동대문 교회는 1892년 남녀공용 전문예배실 즉 볼드윈채플 예배당을 지을 당시 한국건축양식인 "ㄱ자형" 와가건물의 특성을 잘 살려 설계가 되었기에 당시의 봉건사회에서 불가능했던 양성평등을 처음으로 구현한 교회가 되었다.

## 동대문교회의 옛모습



1910년 5월15일 건축된  
'2차예배당(1973년까지 사용)

1892년 12월25일 건축된  
'ㄱ'자형 예배당  
(1910년까지 예배드린 장소)

미국에서 보내온 동대문교회 옛 사진 (19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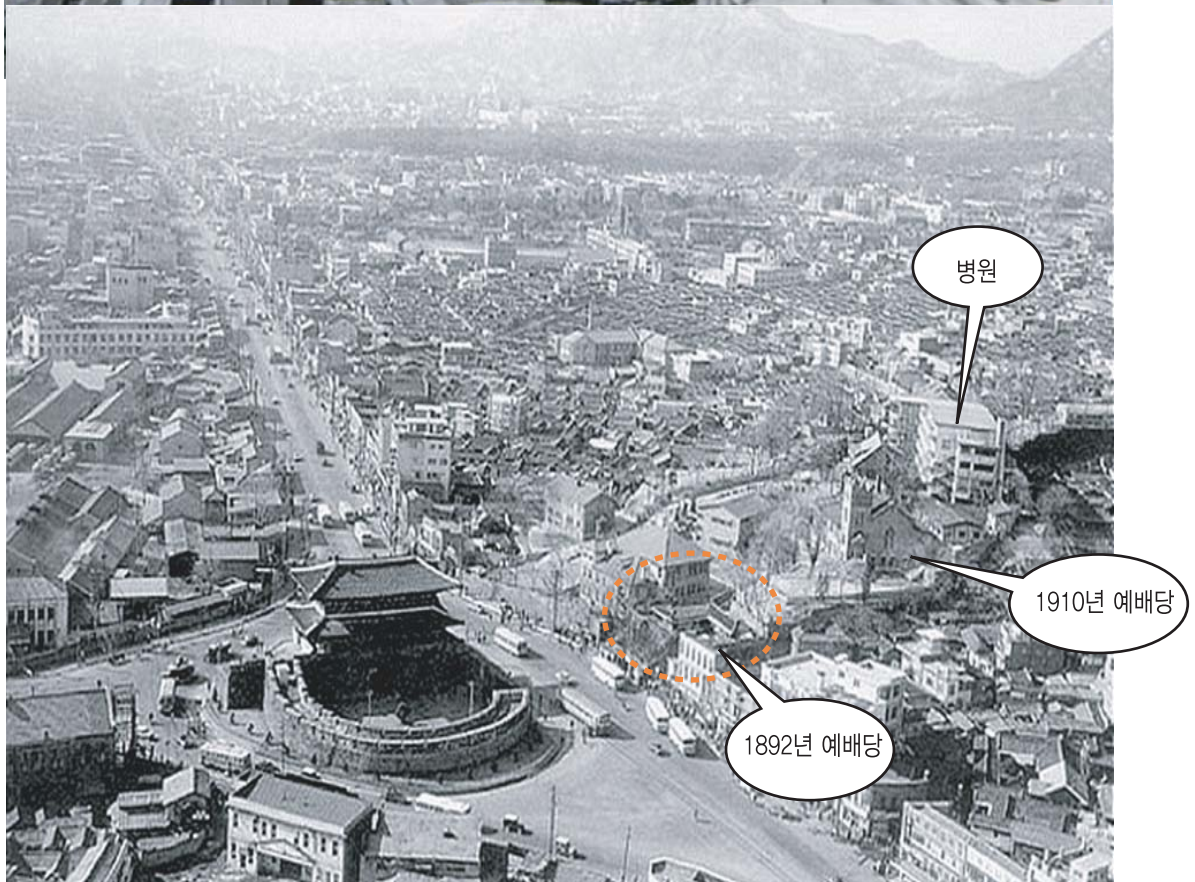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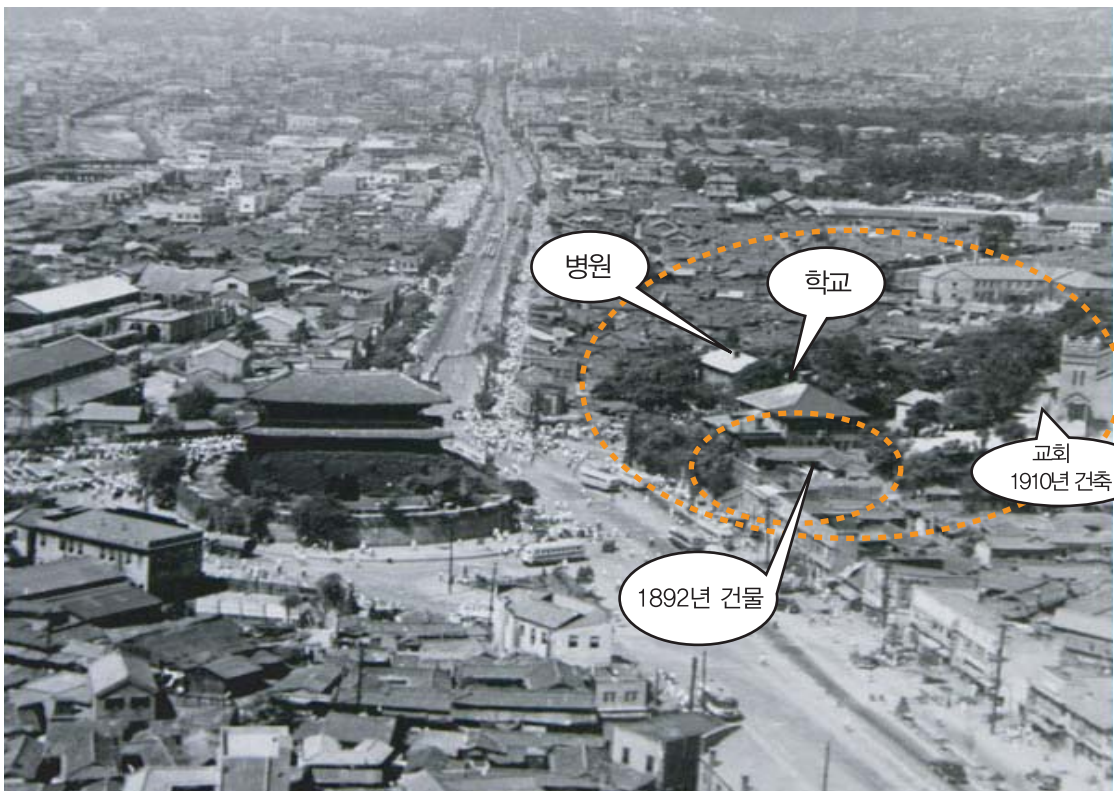


남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조선 최초의 건물인 ㄱ자형 와가 동대문교회는 1892년도에 건축되어, 남녀칠세부동석의 사회상을 뛰어넘는 건축물로서 각광을 받고 교회부흥에 크게기여하였으며, 당시 시대상황에 맞는 대표적 교회모델로서 종교교회와 경동교회 등의 건축에 널리 활용 되었으며 , 소래교회,장대현교회 그리고 현존하는 금산교회, 두동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 “ㄱ자형 교회” 로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김제금산교회”는 1908년 미국 데이트 선교사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1997년 도문화재 13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도에 복원개축되어 기독교 유적지로서 살아있는 역사 문화의 교육현장이 되고있다
- 익산의 두동교회는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385번지에 있으며 1929년 건축되었고, 2002년도 지방문화재 179호로 지정, 2003년 복원 개축하였으며, 가옥대장 등기가 전무한 상태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 문화유산으로 선교유적지가 되었다.



## 1950~60년대 항공사진





## 동대문 교회 예배당의 변천사

여성들만이 모여 예배드림



시약소 1887년



보구녀관 1889년



1892년 12월 25일 ~ 1910년 5월  
7자형 예배당 (볼드원채플)  
최초로 남녀함께 예배드린 건물  
남녀 50명~200명이 모였음



1910년 5월 15일 ~ 1973년  
1,000명의 성도 모였음  
대지 813평, 연건평 221평 현대식 2층 건물



1973년 ~ 2012년 6월 현재의 교회



## 2. 조선시대, 일제시대해방 이후의 3시대에 걸친 축조물로 조화된 "축대"

### 축대의 문화적 가치

이 당시 볼드원채플의 윗쪽 높은 곳에 제2차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산을 깎아 길을 만들게 되면서 볼드원채플건물 옆에 축대를 쌓게 된다. 2차 건축예배당을 건축하여 1910년 이후 10년 동안 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축대양식이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건물 보호를 위하여 축대를 보강하여 축조되어 있기에 본 건물의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 또한 한 건물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건축물로서 연구대상이 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119년된 축대로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축대사진

### 3. 여명의 종(黎明의鐘)

(민족을 깨운 종)

동대문 감리교회3대(1896-1897), 9대(1906-1907)담임목사인 벙커선교사(미국인)가 미국에서 제작하여 1910년 5월15일 제2차의 교회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입당예배를 드리던 1910년 5월15일 본 교회에 기증된 최초의 서양종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종으로서 당시 2개를 들여와 1개는 황해도 소래교회에 기증하였다고 함.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 여명의 종소리를 듣고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항일독립운동의 의지를 새롭게 하였으며 과 민족계몽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였다

당시 장안의 명물로서 종소리는 보신각까지 들렸다고 하며, 일제 말기 전쟁물자로 없어질 위기에서도 보존되었고, 6.25당시에도 인민군들이 탈취하려 하였으나 역사문화의 중압감 때문에 위기를 면하여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음.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였고 "민족의식을 깨운 종"으로 보신각종과 함께하는 시민속의 민족문화유산으로서 3.1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에는 반드시 울려야 한다.



1910년 5월15일 입당예배를 드린  
2차건축예배당

이 종은 1910년 5월15일 벙커선교사에 의해 본 교회에 봉헌된 것입니다.  
1973년 성전개축에 따라 비치하지 못하였다가 1990년 10월 21일 창설 100주년 기념일을 기해 이 자리에 봉헌한 것입니다.



## 4. 3.1운동, 독립운동의 발상지

(유래)

동대문교회와 「3.1운동,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하여는 당시 3.1운동의 역사적배경과 감리교회와 3.1운동,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펴야한다.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에 의해 이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선교사들은 1886년부터 배재학당, 이화학당을 세우고 배재학당에 세운 출판사에서 독립신문, 협성회보, 매일신문 등을 발간하면서 서구문화를 도입하고 자주민권자강운동 등을 통해 기울어져가는 국가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다. 이승만, 서재필, 윤치호, 신홍우 등의 감리교 성도들을 통하여 독립협회와 협성회가 조직된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조약이 체결되자 상동감리교회로 모여들었던 김 구, 이 준, 이회영, 최재학, 주시경, 이동휘, 이동령, 이승훈, 안태국, 이 갑, 유동열 등이 고종황제에게 한일조약 무효폐기 상소를 올렸고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위중, 이상설 등이 파견된다. 이처럼 당시 민족구국운동의 본거지가 모두 교회였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 신자들이었다. 애국 독립지사라면 거의 교회로 들어와 기독교신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던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3.1운동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 기독교인 16명, 천도교대표 15명, 불교 2명이 있었다. 기독교대표 16명 중 감리교회 이필주, 신홍식, 신석구, 최성모,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오화영, 정춘수 등의 9인과 장로교인이 7명 이었다. 또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상해 임시정부와 미주지역 등의 독립운동에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이 민족 의식을 깨우고, 민족 자존과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국제정세를 가르쳐주며 민족계몽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결정적 역할을 해준 분이 바로 선교사 아펜젤러, 스크랜턴대부인, 스크랜턴목사, 힐버트목사, 벙커목사, 브로크만 선교사, 캠벨 목사 등이며 이들 미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3.1운동과 독립운동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민족사의 운명을 바꾼 일들이 미국의 보호하에 있던 선교사들의 중대한 선교사역이었기에 가능 하였으며 기독교가 들어온 후 , 34년만에 3.1운동이 일어난다.

1889년 창립된 동대문교회는 3.1운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한 선교사 아펜젤러, 스크랜턴대부인, 스크랜턴목사, 힐버트목사, 벙커목사, 케블목사, 스웨어러목사등의 선교사들이 창립하여 시무한 교회로서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산실이었고, 이들 선교사는 모두 양화진 선교사묘역에 잠들고 있다.

3.1운동당시 동대문 교회는 천여명의 성도가 있었고 김상옥 열사 황중극 등 성도들과 소속 보구여관 간호사들이 만세를 부르며 참여하였고, 독립운동가로는 제13대 손정도 목사(상해 임정 의정원 의장)와 민족대표 33인 중 정춘수목사, 항일운동가 황중극 장로, 박원경 장로, 이효덕 전도사, 이하영 목사, 종로서를 폭파한 김상옥열사와 하와이임정의 박용만선생 등이 있다. 제2대 담임목사 힐버트 선교사는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업적을 기리고 있으나, 묘비 옆의 초라한 팻말에 눈길이 간다.

이와 같이 삼일운동 독립운동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와 감리교, 동대문교회와 선교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터를 보존, 문화재로 지정(등록)하여 역사의 현장을 복원 개발하여 후손에게 살아있는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 동대문교회와 삼일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

### A. 민족독립의지를 심어준 선교사



스크랜턴선교사  
1대 담임



허버트 선교사  
2대



병커선교사  
3대



케블선교사  
5대



스웨어러선교사  
7대



여의사 하워드



의사 로제타홀



의사 해리스  
(여성선교사)



의사 커틀러  
(여성선교사)

### B. 동대문 성도, 독립운동가



손정도목사  
상해임정  
의정원장  
건국훈장 독립장



정춘수목사  
3.1운동 3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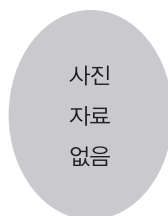
김상옥열사  
3.1운동 주도  
종로서 투탄  
건국훈장 대통령장



박용만선생  
미주군사학교창설  
하와이임정  
독립운동가



이하영목사  
3.1운동 주도  
건국훈장 애국장



황중극장로  
3.1운동 주도



박원경장로  
3.1운동 주도  
건국훈장 애족장



이효덕전도사  
3.1운동 주도

## 건국훈장을 받은 헐버트



헐버트  
(2대 담임목사)  
(1893~1896)



양화진에 있는 헐버트 묘역

## 상해임시정부의 손정도 목사



손정도 목사  
(13대 담임목사)  
(1914~1915)



상해 임시정부 당시 사진 (가운데 안창호 왼쪽이 손정도 목사)

## 5. 동대문부인병원(保救女館)

1885년 5월 3일 감리교선교사로서 첫 번째 입경한 스크랜톤의사(목사)는 그해 9월 10일 정동 자기 집에서 진료를 시작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감리교 의료선교는 당시 황실의 우호속에서 정동병원이 개설되었고, 고종황제는 스크랜톤의 병원에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하사해 주었다.

당시 봉건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병원의 필요를 느낀 스크랜톤의사는 본국으로 여의사를 파송을 요청하여 1887. 10 31 여의사 하워드(Miss Meta Howard)양이 입국하여 정동부인병원이 개원되었고, 명성황후는 하워드양의 활동에 고마움으로 정동부인병원의 이름을 보구녀관(保救女館)이라 지어주었다.

\*스크랜톤의사는 서민선교와 진료를 위하여 동대문구역에 1887년 2월 7일 동대문부인 진료소를 개원 하였고, 하워드양에게 정동과 동대문 두 곳을 담당케 하였다.

\* 정동교회의 보구녀관은 (정동부인병원) 1889년 동대문부인 진료소(동대문 시약소)로 옮겨 동대문 진료소와 보구녀관이 합쳐 대규모의 여성병원인 동대문 “보구녀관” 이 개원되었고, 이곳에 간호학교가 설립되어 한국최초의 간호사가 배출되었으며 산파학교와 여자의학대학교가 설립되어 의료진이 배출되었다. 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의학교육에 헌신한 여의사 로제타(Miss Resetta S. Hall)에 의하여 시작한 여자의학대학은 8.15해방이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존속되었고 보구녀관으로 시작된 동대문부인병원은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되었다. 이와같이 동대문부인병원은 최초의 여성병원으로서 진료활동을 하였고 여자의학교육을 개척한 산실이 된다.



보구녀관

보구녀관을 공원내에 복원하여 보존해야 한다.



## 동대문부인병원의 터에 존재했던 병원의 발전과정

### 동대문부인병원



시약소  
1887년



보구녀관  
1889년



볼드윈시료소 1892년  
정동보구녀관 이전합류 1900년



해리스기념병원 (1903년)  
동대문부인병원으로 다시개명 1930년



동대문부속병원



이대부속병원  
1945년



이대부속병원  
(건축~해체)

## 동대문부인병원 관련 사진 자료

### 초기 여성 의료선교사

(서울의대 자료)



**Meta Howard, M.D.**

美 North-Western 지부에서 1887년 파견된 첫 여의사로서 동대문병원(시병원), 후에 보구녀원에서 일하다.  
건강상 2년 후 귀국함.



**Lillian Harris, M.D.**

신시네티 지부에서 1897년 파견되어 서울 볼드윈 시약소(Boldwin Dispensary)에 근무, 안식년 휴가전말 Typhus에 감염되어 사망함. 그 후 그녀를 기념하여 해리스기념병원 (Lillian Memorial Hospital)이 설립된다.



**Rosetta Sherwood, M.D.**

美 뉴욕지부에서 1890년 파견되어 서울에서 일하다.  
W.J.Hall, M.D와 결혼하여 평양에서 함께 일하며 부인과일을 했다.  
남편 사망후 재입국하여 맹인교육을 시키고 경성여자의료전문(현 고대의대)를 설립했다. 아들부부가 모두 의사로서 2대에 걸쳐 봉사했다.  
6명의가족 모두 양화진묘지에 안장 되어있다.



**Emma Ernesberger, M.D.**

美 신시네티 지부로 부터 1899년 파견, 릴리안 해리스병원에서 근무함.  
동시 동대문교회 선교와 주일학교를 책임진다.  
1911년 WFMS에서 은퇴한다.



**Mary M. Cutler, M.D.**

美 신시네티와 뉴욕지부에서 1892년 파견되어 서울 보구여관에서 일함.  
조선여성을 극진히 사랑하며 선교사 건강을 보살폈다.



**Mary S. Stewart, M.D.**

美 필라델피아지부로부터 1911년 파견, 서울에서 활동함.

### 동대문부인병원 간호학교에서 배출한 간호원 가관식 사진



간호사 에드먼즈



간호 교육을 시작한지 5년 만인 1908년 11월 5일 처음으로 김마르다와 이은혜 2명이 졸업하였다.



## 동대문부인병원 관련 사진 자료



1926년 닥터 로제타홀과 신생아실 간호사들



A score of babies who 'when they pass East Gate Hospital a few years hence will exclaim, "That's where I was born!"



## 6. 근대교육발생의 터 (민족계몽의 터)

(유래)

- 1885년 아펜젤러선교사(한국감리교 설립자)가 입국하여 1886년 배재학당과 이화학당(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톤대부인)이 설립되어 이땅에 근대교육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감리교회(재단법인 조선기독교 미 감리교회 유지재단)이름으로 현재의 지번인 종로구 종로6가 65번지 일대를 취득하여 동대문부인병원(시약소,보구녀관)을 개원하고 1889년 동대문교회를 설립하여 당시 한양(서울)의 동편 서민선교를 위하여 동대문교회내에서 병원사업과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 1892년 볼드윈 여학교(동대문여자보통학교 → 동구여상)
- 1892년 보구녀관에서 의학교육실시 5명중1인 박에스더는 1897년 미국유학 1900년 의사 자격 취득 후 귀국 의료활동을 하다.
- 1900년 흥인배재학교(초등학교 과정) - 국내 최초의 초등학교
- 1900년 흥인배재학교(유치과) - 국내 최초의 유치원
- 1903년 보구녀관에 커틀러와 에드먼즈는 “간호원 양성소” 를 설립하고 1908년에 김마다(김마르다),이은혜(이그레이스)등 2명의 한국 최초 간호원을 배출하였다.
- 1910년 동대문 부인 성경학원
- 1918년 동대문유치원
- 1918년 소년매일학교
- 1923년 여성야학 (대성학원)
- 1928년 9월4일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설립
- 1970년 동대문직업소년학교 ,야간부 학교

본교회 건물과 부속건물 병원의 건물을 사용하였던 동대문교회 소속의 각종학교(흥인,배재,유치원,대성학원 등)는 2차 대전의 패전을 목전에둔 일제의 탄압과 만행으로 폐교하게 되었다.  
특히 흥인·배재학교는 소학교 과정으로 소학교가 없던시절 이화, 배재학당으로 자원을 양성하여 보낸 소학교로서 일제 강점기 소학교가 개교되기전까지 초등교육을 담당한 선교사들이 세운 초등교육기관이다.

해방을 전후하여 1942년 6월 동대문여자보통학교는 현 동구여상(東丘女商)의 설립과정이 되었고, 동대문부인병원 안에 있던 “여자의학대학”은 여자의학교육의 효시로서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아 의학교육을 본 궤도에 올려놓게된다.

이 학교는 이후 서울여자의과대학 → 1964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 1967년 수도의과대학 → 1971년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병합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동대문교회는 창립당시 의료선교로 시작되었고, 동대문여자보통학교는 본 교회 창립 당시 부속기관으로 세워진 현대식 교육기관으로서 배재,이화 다음으로 세 번째 세워진 학교였다.

동대문교회는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이 각종 학교를 세워 이민족을 일깨우고 신앙과 애국정신,민족교육에 헌신한 교육의 현장이다.

## 동대문교회 선교타운내의 교육현장



볼드윈여학교 (드류신학교 제공사진)



교육시설로 활용 된 1910년 두번째 성전



1912년 부인성경학원 1회 졸업생  
문 알베르토, 손메례, 양로우더, 박마불



동대문여자보통학교



1928년 여자의학교 개교기념



동대문 직업학교 학생들



## 7. 서양식 결혼문화 (웨딩문화)

(유래)

캐나다 출신 윌리엄 홀 선교사(의사)는 뉴욕에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미국 출신 로제타선교사(의사)를 만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로제타는 1890년 먼저 조선으로 파견되어 동대문병원에서 선교에 참여하게되며 윌리엄 홀 선교사는 1892년 조선에 도착하여 동대문 부인병원(보구녀관)에서 의료선교에 참여하게 되며 2년 후 1892년 6월27일 동대문 교회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하게된다. 이듬해 1893년 11월10일 한국 최초로 서양 아기(셔우드 홀)가 동대문병원에서 탄생되었다. 윌리엄 홀 선교사 부부는 18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의 부상자를 치료하던 중 윌리엄 홀 선교사는 전염병으로 1894년 순교하였다.

그때 동대문교회 보구녀관에서 태어난 셔우드 홀은 부친의 고향으로 돌아가 의학공부를 마치고 의료선교사로 어머니가 근무하는 한국으로 파송되었으며 그가 세운 해주결핵 요양병원에서 닥터 홀 가족의 3세가 태어난다.

갑작스런 남편의 순교로 부인 로제타 홀은 두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3년 후인 189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동대문 부인병원에 근무하며 병원내에서 여성의학대학을 설립하였고 한국 최초 크리스마스 쉼을 만들었다.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개발하였으며 평양에 최초의 맹아학교를 세우고 남편을 기념하는 가홀병원을 설립하였다.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 부부도 의사로서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폐결핵 요양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쉼을 발행하며 결핵 퇴치운동을 펼쳤다.

양화진에 윌리엄 홀 부부와 아들 셔우드 홀 부부를 비롯하여 6명의 가족이 묻혀 있으며 공적비가 있다.

당시 동대문교회에는 의료선교, 교육선교, 교회가 한 장소에서 가장 활발이 진행 된 선교지이므로 많은 선교사들의 생활의 현장이었다.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삶은 한국문화의 빛이 되었으며 그 때부터 보급되어진 웨딩문화는 오늘날 한국인의 결혼문화로 정착되었다.

이제 한국의 결혼문화는 한류를 타고 동남아와 중국으로 번져 그 사회의 결혼문화로 점점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으며, 그들은 결혼문화의 원조인 한국 웨딩문화를 선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로 정착된 결혼문화의 발생을 기념하기 위한 결혼문화의 터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동남아와 중국의 웨딩문화 원조가 되는 한국웨딩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고 기리기 위하여 웨딩문화관을 만들어야 한다.





1892년 6월 27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한 윌리엄 홀 과 닥터 로제타



1893년 11월10일 동대문 병원에서  
조선 최초로 태어난 서양인 셔우드 홀  
2세 (출생5개월)과 어머니 로제타 홀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난 닥터 셔우드 홀과  
1927년 해주에서 태어난 아들 제임스 홀3세



## 8. 나눔의 문화 발생

Sherwood Hall 은 1893년 11월10일 조선선교 초기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서양의학과 기독교를 전한 감리교 부부 선교사 의사 William James Hall 과 Rosetta Sherwood Hall(1865-1951)을 부모로 서울에서 출생(감리교 의료선교본부 동대문 부인병원)하였다.

[ 크리스마스-썸의 한국의 기원과 유래 ]

X-Max Seal 의 우리나라의 기원은1932년 12월 3일에 일제치하에서 캐나다의 선교의사인 Sherwood Hall이 처음으로 X-Max Seal 운동을 시작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결핵퇴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하였다.

[ 나눔문화 ]

기독교를 통하여 신문화가 도입되면서 기독교인은 물론 믿지않는 일반인들까지 매년12월25일을 전후하여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등의 우편물에 우표와 함께 붙여 “나눔” 의 기쁨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아름다운“나눔문화”의 효시가 되었다.

로제타셔우드 홀 (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헌신은 의사인 아들 Sherwood Hall로 이어져 우리나라 최초의 폐결핵 요양병원을 해주에 세워 환자를 돌보며 크리스마스썸을 발행하여 결핵퇴치운동에 앞장 섰다.

이와같은 아름다운 “나눔문화”는 암울했던 일제의 강점기에는 민족의 단결과 희망과 사랑이 되었고 6.25 이후 근세에 이어지며 범국민적 이웃사랑, 나눔문화로 정착 되었다.

[ 유래 ]

가난한 결핵환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돌보고 깨우치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캐나다에서 의학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닥터홀 어머니인 Rosetta Sherwood Hall 와 함께 1925년(32세) 부터 감리교의료선교본부인 보구녀관에서 선교의로 활동을 시작 하면서 (Rosetta Sherwood Hall 은 1928년 동대문부인병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지금의 고대 안암동의료원) 아들인 Sherwood Hall은 해주에 결핵 요양원 설립(결핵환자의 위생학교)을 하면서 서울과 해주를 왕래 하면서X-MaxSeal 제작판매를 시작 하였다.

반면 셔우드홀은 감리교 의료선교본부의 동대문 부인병원(보구녀관)에서 선교활동하던 중 그곳에서 기거하며 작품활동을 하고있었던 영국 판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를 만나게 되었고 키스의 작품을 사용하여 썸을 제작하게된다.



동대문을 그린 X-mas seal을 발행하면서 발행동기를—

첫째, 한국사람들에게 결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둘째, 만인을 항결핵운동에 참여시키는 것 즉 쌀 값을 싸게하여 부자 나 가난한 사람이 모두 사도록 하고,

셋째, 재정적 뒷받침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결핵 퇴치사업의 기금을 모으기(나눔운동)** 위해서였다 라고 회상하였다.

1932년 이후 1940년 까지 9차례에 걸쳐 쌀이 발행되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그는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일본 헌병대에 의하여 강제로 추방되어 쌀 발행도 중단되었다.

## 기원과 발행

영국 판화가 Elizabeth Keith (1887년 스코틀랜드 애버딘서에서 출생)의 자료에 의하면.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지 한달이 채 안된 1919년 3월28일(32세) 영국판화가 Elizabeth Keith가 동생과 함께 한국을 첫방문을 하여 감리교 의료선교회관 선교본부인 보구녀관(동대문부인병원)에서 한국방문 기간내내 그곳에서 지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서양식 붉은 벽돌건물인 동대문선교회는 고색창연한 동대문 바로 안쪽 가파른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중 제일 큰 건물이 여자환자만 치료하는 병원이었다. 언덕 높은 곳에 병원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의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건물들이 있었다. Sherwood Hall은 자연스럽게 판화가인 Elizabeth Keith를 감리교의료선교본부인 보구녀관(동대문부인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두명의 “한국의 아이들” 크리스마스 실은 1919년 처음으로 제작되었고, 그 후 1925년(32세)과 1935년(42세)에 인쇄 되었다.





로제타홀 선교사의 아들 닥터 홀(셔우드홀)은 1940년 스파이 혐의로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었으며, 징역 3년 또는 5,000엔 벌금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벌금 5 000엔을 물고 인도로 자리를 옮겨 의료선교를 하였으며, 1963년(향년70세) 은퇴 후 1991년 4월 5일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98세로 타계하였고, 그 유해는 1992년 4월 10일 동대문교회 주관으로 영결예배를 드렸다. 영결식 피아노 반주자는 송선담 권사이었고 아버지가 묻힌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해 9월19일, 역시 캐나다 밴쿠버에서 타계한 부인 Marian Hall 도 양화진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조선회상》(1978)을 간행하였으며, 1984년 김동열(金東悅)의 번역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되었다.

[출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楊花津外國人宣教師墓園,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이와 같이 동대문교회 소속의 동대문부인병원은 감리교 의료선교의 총본부로서 X-Mas seal 발행을 기획하고 인쇄하고(감리교출판사) 전국적으로 보급한다. 나눔문화의 효시인 seal을 통하여 범국민적인 성금 운동을 확산 하게 된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닥터홀 가족 묘지(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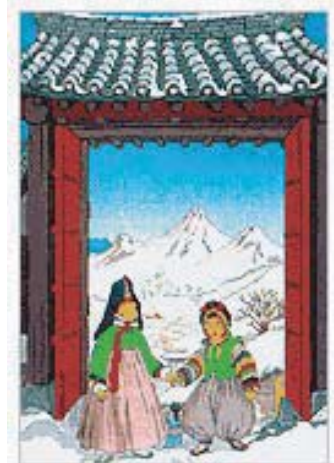


## 초기에 발행된 X-Mas seal 사진



1934년 씬

엘리자베스 키스 1919년 그림



1940년 씬



엘리자베스 키스



로제타 홀 가족



## 9. 동요문화의 발생

'동 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 남 남대문을 열어라  
열두 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유래)

한민족의 정서가 담긴 이와 같은 어린이 동요문화는 기독교 전래 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해방과 6.25를 거치며 전국 방방곡곡 모든 어린이의 애창곡이 되었다. 이 동요는 1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가 애창한 곡으로서 어린이 동요문화의 그루터기가 되었다.

아쉽게도 언제 누가 작사 작곡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동대문교회에서 발생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고 본다.

동대문교회에서 발생되어 구전되어오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와 당시의 정황으로 분석하여 본다면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대문교회에는 초등과정인 흥인배재학교와 소년매일학교, 흥인유치원 등의 어린이 교육기관이 한국최초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곳에는 여성과 소년전문병원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는 선교현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 맞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동대문을 열어라'의 동요가 '4분의 4박자'라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민족은 3분박 즉 4분의 삼박자, 8분의 6박자의 삼분박을 주로 쓰는 유일한 삼분박 민족이었다.

일본의 가락은 주로 2박자(뽕짝)으로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를 빼앗고 일본화시키려는 의도로 우리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삼분박 아리랑을 이박자 아리랑으로 바꾸어 놓은 문화침탈이 있었다.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제외한 근대문화의 발생과 보급은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선교사가 이 땅에 기독교문화를 전래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의 효시인 감리교출판사를 통하여 독립신문, 협성회보, 매일신문 등을 발간하면서 이 신문매체와 교회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었다. 당시 감리교 아펜젤러 등의 선교사를 통하여 각종 근대체육이 소개된 것도 중시해야 할 문화이다. 동요문화기념관을 지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누가 작사했는지 작사자 미상이라고는 하여도 곡만은 서양곡인 4분의 4박자로 작곡되었기에, 작곡가는 당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같이 조선 초기에 불려진 동요문화는 이후 방정환 윤극영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동요문화가 발전되고 정착하게 된다.

또한 주제가 동대문과 남대문이기에 동대문에서 먼저나 남대문에서 먼저 불리어졌느냐를 가름해 본다면 동대문에는 동산이 있고 교회와 어린이 학교가 있었기에 동대문에서 발생하였다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민족의 동요는 동대문교회에서 발생 보급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전국 각처 80여 곳 이상의 지자체에는 노래동산, 시비동산이 그 지방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작사자, 작곡자 최초 불려진 시대가 미상인 우리민족의 브랜드인 아리랑의 기념동산이 '정선'과 '진도'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아름다운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근세역사와 함께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동요문화도 동대문교회의 근대문화 발생의 터에 동요문화회관을 짓고 보존 계승되어야 한다.

※ 전국지자체 지방문화로 시비동산,노래동산이 보존되고 있다.



〈한국초기 선교사들의 업적 컴앤씨〉 유튜브 영상중 캡처 사진



## 10. 보이с카우트 운동의 발상지

국제 보이с카우트는 1907년에 발족하였고, 한국에는 조선말기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0월 5일 조선소년군 경성 제 1호대 (조철호선생) 가 창설되었고, 같은 해 소년척후단 (정성채 선생) 이 발대하였다.

1924년 3월 YMCA에 본부를 두고 소년척후단 조선 총연맹이 결성 되어 총재에 이상재 선생이 취임하였고, 당시 전국적으로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78개 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조선땅에 보이с카우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동대문교회에 제1대가 창설되어 보이с카우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시 한양의 동편 서민들이 기거하던 흥인문 언덕위의 동대문교회는 조선민중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곳으로서 부녀자들과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또한 본국에서 보이с카우트를 경험한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있었고, 동대문교회에는 소학교와 정의 흥인배재학교와 흥인유치원 그리고 교회의 주일학교가 있었기에 당시 봉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с카우트 회원을위한 유례없이 많은 자원이 준비된 곳이기에 이곳에 조선척후대 제1대를 창설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하게된다.

이와같이 동대문교회에서 시작된 조선척후대 제1대의 활동을 기본으로 조선 보이с카우트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해방을 맞은 이후 1946년 3월 1일에 사단법인 대한보이с카우트중앙연합회로 재발족하였고 1948년 8월 국호 변경에 따라 대한소년단으로 개칭 하였으며, 1950년 12월 세계연맹 회원국 가입과 세계무대 진출, 1952년 2월 1일 대한소년단 세계연맹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그해 1952년 8월8일 감격적인 제1회 한국잼버리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 하게된다.

한국 보이с카우트는 발전을 거듭하여 마침내 1991년8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 하게된다.

이와 같은 보이с카우트의 발전에 동대문교회에 세워진 조선 척후대 제1대의 활약과 기초는 한국 보이с카우트를 발전시킨 발상지가된다.



## 11. 한미 우호문화의 발생

동대문감리교회는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일반 백성을 위한 의료, 교육, 선교의 장으로 세워진 후 수많은 백성들이 동대문교회 선교구역 (병원,교회,학교)을 찾아 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신문물을 배우는 장소로서 조건없이 이 백성을 섬기며 목숨바쳐 헌신한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감사의 마음이 샘솟았다.

시대적으로 일제 강점기였기에 일본인과 대비가 되었다.그들의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은 이 백성들에게 우호의 문화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한미우호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이와같이 아름다운 양국의 관계는 8.15해방과 6.25의 참전 우방국으로 이어지며 발전하였다.

동학난이 발생 되었을 시에 동학군의 구호는 척양척왜 이었으나 미국 선교사들이 동대문교회에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의술로 봉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척양의 구호를 빼고 척왜의 기치만을 들고 봉기했다. 이와같이 동대문 교회는 한미우호의 시발점이 되었다.





## 12. 민주화, 민족계몽, 여성평등문화의 발상지

동대문교회를 세운 아펜젤러, 스크랜턴대부인과 스크랜턴, 헐버트, 벙커, 케블, 스웨어러 등의 역대 담임자와 동대문교회 소속 여성병원(보구녀관)의 여의사 하워드, 로제타홀 등의 의료선교사 들은 암울했던 조선말기와 일제시대에 이 민족을 깨운 스승으로서 이들을 통하여 3·1운동과 독립운동의 기초가 세워지고, 문맹퇴치 등 민족계몽의 길이 열리게되며 여성병원, 여성교육 등을 실현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3·1운동의 정신으로 4·19와 한일협정반대, 유신독재 반대, 5·18, 6·10항쟁 등의 민주화의 운동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민족사의 중심에 동대문교회가 함께 하였으며, 황건권사 등의 많은 청년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 하였고, 독재의 억압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장기천감독은 제30대 담임으로서 ‘사회속의 교회’, ‘민중속의 교회’를 외치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급격한 산업화에 밀려 노동자들의 인권이 짓밟혔을 때 약자편에서 그들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은 곳이다. 또한 전태일열사가 늘 기도하던 교회로서 분신 하기전 마지막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동대문 교회는 부인성경학교를 통한 문맹퇴치의 시작이 되었으며 간호원 양성소 및 여자 의학교와 여자보통학교설립 등의 민족계몽운동과 여권신장, 여성평등문화의 산실이며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터전이기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와 같은 살아있는 문화가 숨쉬고 있는 동대문교회를 교육의 현장으로 영원히 보존하여야 한다.



동대문교회 제30대 담임 장기천 감독  
(1980~2000)

## 참고 및 출처문헌

- 동대문교회 백년사
- 동대문교회 여선교회사
- 정동교회 역사(1885-1997) 화보집
- 서울연회사
- 닥터홀의 조선회상(김동렬 옮김, 좋은씨앗출판사)
- 엘리자베스키스 KOREA(송영달 옮김, 책과함께 출판사)
- 엘리자베스키스의 그림에서 우리문화찾기(배유안 글, 책과함께출판사)
- 양화진선교사묘원자료실
- 이대부속병원 자료실
- 이대부속 이화역사관
- 이화100년사(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의대 역사자료실
- 美 드류신학대학교 자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 보건신문
-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 (유석근 저)
- 한국전통음악과 예배와 찬양 (손해석 저)
- 한국보이스카웃
- 감리교역사정보자료실
- 감리교영상선교연구소

#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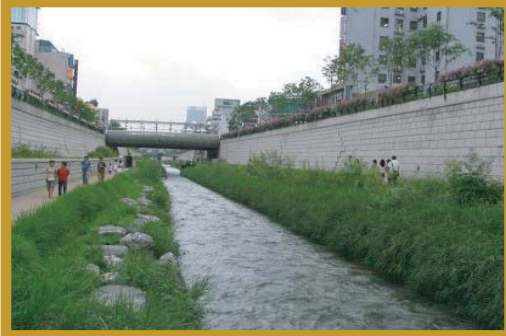
동대문 교회를 한양성곽공원내 존치하여 "유네스코헌장"정신에 입각한〈600년한양성곽〉과 〈근현대문화-동대문교회〉가 공존하는 개발을 해야한다.

## \*성곽이 잘 보이고 성곽순환올레길을 만들기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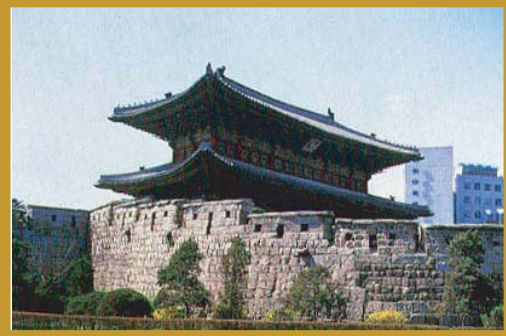
- 동산위에는 현재의 교회건물을 헐고 잔디동산위에 현존하는 "ㄱ자형예배당"을 존치하여 여명의 종을 안치하고, 보구녀관을 복원하고 와가로 동요문화관을 만들어 성곽과 흥인 지문과 조화를 이루게한다.
- 성곽공원내 4500평중 지형이 낮은쪽 2500평에 지하건축물(지하5층)을 만들어 지하에 동대문교회성전과 , 식당, 웨딩문화관,향일독립운동관등 문화콘텐츠의 장을 만든다.
- 지하내 대형버스주차장을 만들어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한다. (현재 시장등의 근처에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음)
- 주차시설을 만들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민족여명의 동산 (한양성곽공원)을 민족 여명의 동산으로 만들어 전체를 역사 테마공원으로 명명되길 제안한다.



청계천  
(太古,自然)



흥인지문,성곽  
(朝鮮時代)



한양성곽공원

역사문화복원, 국민교육장으로  
동대문교회(1889~2011)  
近現代史



동대문 역사문화박물관  
(舊,동대문운동장(現在,未來)

## 제안

### 1안 현 교회당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내 존치

지하에 예배당 식 공연장, 각종 문화관, 주차장(서울시 관리)을 건설하고, 동산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

(독립운동기념관 / 험버트선교사기념관 / 손정도기념관 / 김상옥열사기념관 등)

### 2안 현 교회당 건물 철거하고, 공원내 존치

공원내 부지에 교회를 세우고 동산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

### 3안 현 교회당 건물 존치하고 일부멸실(올레길용)

※ ㄱ자에배당 보존